

2025학년도 10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해당 자료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1	2	2	4	3	5	4	4	5	5
6	5	7	2	8	3	9	3	10	5
11	3	12	2	13	3	14	5	15	4
16	1	17	5	18	1	19	5	20	2
21	1	22	4	23	2	24	5	25	2
26	3	27	4	28	4	29	2	30	4
31	1	32	4	33	3	34	2	35	3
36	3	37	2	38	5	39	1	40	4
41	2	42	3	43	5	44	4	45	5

[화법 · 언어]

1.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1문단의 ‘이것이 고맥락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답을 듣고) 아는 분이 많지 않네요.’에서 질문을 하여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발표 계획 반영 여부 판단하기

3문단에서 고맥락 문화의 관계 중심적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며,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장단점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기억하시나요?’라고 질문하며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환기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오늘은 고맥락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에서 발표의 화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화라고 합니다’에서 고맥락 문화의 개념을 저맥락 문화와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의 ‘고맥락 문화의 ~있는 것이지요.’에서 고맥락 문화의 상황 중심적 특징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의 ‘지금까지 의사소통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에서 발표 주제를 언급하고 있고, ‘여러분도 우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에서 청중에게 기대하는 바를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높임 표현 이해하기

㉞는 주체인 ‘선생님’을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고, 객체인 ‘어머니’는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㉞는 주체인 ‘엄마’를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㉞는 주체인 ‘할머니’를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㉞는 객체인 ‘선생님’을 특수 어휘 ‘여쭙다’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㉞는 청자인 ‘할아버지’를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화법]

4. [출제의도] 사회자의 역할 이해하기

‘사회자’의 세 번째 발화에서 ‘혹시 △△ 마을 측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방안을 준비하셨나요?’

라고 질문한 것은 ‘학생 1’이 언급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묻는 것일 뿐 ‘학생 2’에게 자신의 발언을 수정하도록 보충 질문을 제시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사회자’의 첫 번째 발화에서 ‘생태 탐방로 조성을 주제로 한 모의 협상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주제를 제시하면서, ‘그럼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협상을 시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사회자’의 두 번째 발화에서 ‘○○ 마을은 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시는군요.’라고 ‘학생 1’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사회자’의 첫 번째 발화에서 ‘먼저 ○○ 마을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발화에서 ‘이번엔 △△ 마을의 입장을 들어 보겠습니다.’라고 발언 순서를 지정하고 발언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사회자의 네 번째 발화에서 ‘다음 협상에서는 해설사 양성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추후 논의할 내용을 안내하며 협상을 마무리하였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협상 내용 분석하기

[B]에서 ‘학생 2’의 발언은 앞서 ‘학생 1’이 언급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일 뿐, 상대측의 제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밝힌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 ‘학생 1’은 ‘우리 마을 생태계 보호를 위한 방안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라며 상대측이 제안한 해결 방안들을 수용하고, ‘하지만 탐방객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제안하신 대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라고 예상되는 문제 상황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A]에서 ‘학생 2’는 ‘우려하시는 바를 고려해’라고 말하며, ‘탐방로를 조성할 때 남생이의 주요 산란지는 피하’고 ‘생태계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마을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수익의 일부를 ○○ 마을에 기부하겠습니다’라고 상대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A]에서 ‘학생 2’는 ‘저희도 환경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 마을의 목표에 동의합니다.’라고 ○○ 마을의 공동체 목표에 동의하며, ‘탐방로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생태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제안이 상대측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B]에서 ‘학생 1’은 ‘특정 시기에 ~습지 생태계에 큰 부담이’ 된다고 하며 특정 시기에 예상되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고, ‘지속적인 생태 관광을 ~대안도 필요해 보입니다’라며 상대측에게 추가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파악하기

[자료 2]에서 수면 위에 떠 있는 순채의 생태와 잎 위에 올라 일광욕을 하는 남생이의 생태를 고려하여, [자료 1]에서 제시한 탐방로 유형 중 수면 위 생태 영향이 작은 수변 고정식 탐방로를 선택하였으며, [자료 3]에서 제시된 탐방 총량제 도입을 활용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① [자료 2]를 활용하여 남생이가 멸종 위기종임을 언급하였으나, 탐방객의 접근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료 1]과 [자료 3]을 활용한 내용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자료 3]을 활용하여 탐방 총량제 도입을 언급하였으나,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자료 1]을 활용하여 수면 위 고정식 탐방로 설치를 제안하였으나, 이는 [자료 2]의 수면 위에서 생활하는 남생이와 순채의 생태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며, [자료 3]은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탐방로를 지면 위에 설치하는 것은 [자료 1]을, 멸종 위기종임을 고

려한 것은 [자료 2]를 활용하였으나, [자료 3]을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문법]

7.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털양말[털량말]’에서는 첨가인 ‘ㄴ’ 첨가와 교체인 유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첨가와 교체가 모두 일어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묻히다[무치다]’는 축약인 거센소리되기와 교체인 구개음화가 일어나며, 탈락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굵적굵적[극쩍극쩍]’은 탈락인 자음군 단순화와 교체인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며, 첨가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척박하다[척빠카다]’는 교체인 된소리되기와 축약인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며, 탈락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굵다랗다[국따라타]’는 탈락인 자음군 단순화, 교체인 된소리되기, 축약인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며, 첨가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시제 문법 요소의 다양한 쓰임 이해하기

선어말 어미 ‘-는-’이 부사어 ‘조만간’과 함께 사용되어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사건을 표현하는 데에 쓰인 경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선어말 어미 ‘-ㄴ-’이 부사어 ‘곧’과 함께 사용되어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사건을 표현하는 데에 쓰인 경우이므로 적절하다. ② 선어말 어미 ‘-는-’이 보편적 진리라고 받아들여지는 과학적 사실을 표현하는 데에 쓰인 경우이므로 적절하다. ④ 선어말 어미 ‘-ㄴ-’이 부사어 ‘매년’, ‘이때때’와 함께 사용되어 과거에서부터 일정하게 반복되는 일을 표현하는 데에 쓰인 경우이므로 적절하다. ⑤ 선어말 어미 ‘-ㄴ-’이 역사적 사건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데에 쓰인 경우이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의 원칙 이해하기

‘개구리’는 어근 ‘개굴’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파생된 단어이다. 각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지 않고 연음되어 발음되는 형태대로 적은 표준어이므로 ㉠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하다. ‘오뎅’은 어근 ‘오뎅’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파생된 단어이다. ‘개구리’와 달리 각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표준어이므로 ㉡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하다.

① ‘많이’는 어근 ‘많-’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파생된 단어이므로 ㉡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하다. ‘뒹개’는 어근 ‘뒹-’에 접미사 ‘-개’가 결합하여 파생된 단어이므로 ㉠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하지 않다. ② ‘얼음’은 어근 ‘얼-’에 접미사 ‘-음’이 결합하여 파생된 단어이므로 ㉠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하지 않다. ‘화살’은 어근 ‘활’과 어근 ‘살’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이파리’는 어근 ‘잎’에 접미사 ‘-아리’가 결합하여 파생된 단어이므로 ㉠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하다. ‘우스개’는 어근 ‘웃-’에 접미사 ‘-으개’가 결합하여 파생된 단어이므로 ㉡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하지 않다. ⑤ ‘어렵풋이’는 어근 ‘어렵풋-’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파생된 단어이므로 ㉠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하지 않다. ‘꼬트머리’는 어근 ‘끝’에 접미사 ‘-으머리’가 결합하여 파생된 단어이므로 ㉡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하지 않다.

10.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중세 국어에서 목적격 조사는 선행 체언의 받침 유무와 모음 조화에 따라 ‘을/을/를/를’이 결합하였다. <보기>의 ‘썩니들’은 체언 ‘썩님’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어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것이며, ‘즈비들’은 체언 ‘즈비’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어 목적격 조사 ‘를’

이 결합한 것이므로 선행 체언의 모음에 따라 목적격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띄’의 초성 ‘ㄴ’에서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초성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중세 국어에서 ‘어엿쁘다’는 ‘가엿다’의 의미로, 현대 국어의 ‘어여쁘다’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어엿비’가 현대어 ‘가엿게’로 해석되는 것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기르스 븃니’를 표기하는 데 ‘△’, ‘·’, ‘ 븃’이 모두 쓰였으나 이 세 개의 음운은 현대 국어에서 소실된 음운이므로 적절하다. ④ ‘니르니라’는 현대어 ‘일렀느니라’와 다르게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사회]

[11 ~ 16] <출전> 송재도, 「가격이론」

1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준거가격이 외부준거가격과 내부준거가격으로 분류되는 양상을, (나)는 준거가격이 기업의 마케팅에 활용되는 양상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가)의 2문단에서 ‘양의 차별화 가치를 부여해 소고기의 내부준거가격을 높이고’를 보면 소비자가 제품에 양의 차별화 가치를 부여하면 내부준거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3문단에서 ‘소비자의 흥미나 관심사 등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에 기울이는 관심의 정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1문단에서 ‘외부준거가격’은 ‘광고나 상품에 붙은 가격표 등에 의해 소비자에게 제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1문단에서 ‘내부준거가격은 소비자가 과거 경험이나 현재 구매 환경 등을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형성한 주관적 기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2문단에서 ‘시장에는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 비슷한 효용을 제공하지만 형태나 기능 등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가)의 3문단의 ‘이 경우 소비자는 ~ 내부준거가격을 형성한다.’를 보면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높으면 내부준거가격을 형성하기 위해 제품을 탐색하는 절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품의 구매에 대한 의사 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3문단의 ‘제품의 가격이 비싼 경우에 소비자의 관여도가 높아진다’를 보면 일반적으로 내부준거가격보다 제품의 실제 가격이 높은 경우 소비자의 관여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3문단의 ‘반면 구매하려는 제품에 ~ 유지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를 보면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는 기존에 형성한 내부준거가격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3문단의 ‘고가의 제품이라도 반복적으로 ~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를 보면 제품이 고가라도 그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는 품질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기존의 내부준거가격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3문단의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건강이나 ~ 내부준거가격을 형성한다.’를 보면 제품이 자신의 사회적 위신에 영향을 미칠 경우 소

비자는 관여도가 높아져 구매 결정까지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내부준거가격을 형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4. [출제의도]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하기

‘질문 3’에서 기업이 인기 차종의 가격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3문단에서 인기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높이지 않는 이유와 유사하다. 따라서 ‘질문 3’에 대한 답은, (나)의 3문단의 ‘그래서 기업이 ~ 방지하려고 한다.’를 보면 기업이 자동차의 가격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는 이유가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거래효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품의 가격을 소비자의 내부준거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 거래비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질문 1’에 대한 답은, (나)의 1문단의 ‘행동경제학에서는 거래효용이 ~ 이익으로 인식한다고 본다.’를 보면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며 느끼는 가치보다 거래효용이 커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이익으로 인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질문 2’에 대한 답은, (나)의 2문단의 ‘먼저 회소성 제시 전략은 ~ 인식하게 하는 전략이다.’를 보면 기업이 제품 구매 시 시간이나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하는 전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질문 2’에 대한 답은, (나)의 2문단의 ‘다음으로 외부준거가격 제시 전략은 ~ 가격인 과거 준거가 있다.’를 보면 기업이 제품의 할인된 가격의 비교 대상으로 경쟁기업의 판매가격이나 과거 자사의 판매가격을 함께 제시하는 전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질문 3’에서 기업이 인기 차종의 가격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3문단의 인기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높이지 않는 이유와 유사하다. 따라서 ‘질문 3’에 대한 답은, (나)의 3문단의 ‘기업은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 높이지 않는 것이다’를 보면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보기>에서 갑은 외투 B의 20% 할인된 가격에 대해 거래효용을 인식해 이를 구매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외투 B가 예약이 되어 구매할 수 없게 되자, 외투 B를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로 인식하게 되어 속상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나)의 1문단의 ‘행동경제학에서는 거래효용이 ~ 보는 것이다.’를 보면 갑이 외투 B를 구매하지 못해 속상해진 것은 할인된 가격보다 내부준거가격이 높아져 거래비효용이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품의 할인된 가격에 대한 거래효용을 손실로 인식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에서 갑은 외투 B의 보온성이 떨어져 아쉬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의 2문단의 ‘반대로 욕질이 ~ 내부준거가격을 낮춘다’를 보면 갑은 외투 B의 보온성에 음의 차별화 가치를 부여했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에서 외투 B의 가격표에는 기존에 판매했던 가격과 20% 할인된 가격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의 2문단의 ‘자사에서 과거에 제품을 판매했던 가격인 과거 준거’를 보면 갑이 본 외투 B의 가격표에는 과거 준거와 할인된 가격이 모두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갑은 20% 할인된 외투 B를 구매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의 2문단의 ‘만약

소비자가 ~ 발생하게 된다.’를 보면 갑이 외투 B의 구매가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은 외부준거가격을 내부준거가격으로 형성하여 거래효용이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에서 갑은 매장을 나오다가 진열대에 있는 양말을 특별한 고민 없이 구매했다. 이와 관련하여 (가)의 3문단의 ‘반면 구매하려는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낮으면 ~ 제품을 탐색하거나 대안을 생각하는 절차를 생략하고’를 보면 갑은 양말 구매 시 차별화 가치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6.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가)의 ㉓는 ‘사물이나 일에 가치나 의의 따위를 붙여준다.’의 의미이므로, ㉔의 문맥적 의미를 양이나 음의 값을 ‘다른 곳으로 옮기며’라는 의미로 파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의 ㉕는 ‘알아서 깨닫다.’의 의미이므로, ㉖의 문맥적 의미를 개인이 중요성을 ‘깨닫는’이라는 의미로 파악한 것은 적절하다. ③ (가)의 ㉗는 ‘사람이나 물자, 자본 따위를 필요한 곳에 댈다.’의 의미이므로, ㉘의 문맥적 의미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라는 의미로 파악한 것은 적절하다. ④ (나)의 ㉙는 ‘수량이나 범위 따위가 제한되어 정해지다’의 의미이므로, ㉚의 문맥적 의미를 시간이나 수량이 ‘제한되어 정해진’이라는 의미로 파악한 것은 적절하다. ⑤ (나)의 ㉛는 ‘명백하고 확실하다’의 의미이므로, ㉜의 문맥적 의미를 소비자에게 하는 설명이 ‘명백하고 확실하’라는 의미로 파악한 것은 적절하다.

[인문]

[17 ~ 20] <출전> 강충권 외, 「사르트르의 미학」

17.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3문단에서 ‘아날로공은 비실제적 대상을 감각적 경험 속에서 현전하게 만’든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① 1문단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본질이나 역할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서 “‘무화’와 ‘상상’이라는 의식”을 통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데, ‘상상은 단순한 환상과’ 다르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3문단에서 ‘예술가들은 무화와 상상을 통해 현실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그 너머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5문단에서 ‘사르트르의 예술 철학에서 창작과 감상은 모두 인간 의식의 무화와 상상을 바탕으로 한 실존적 활동’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8. [출제의도] 중심 소재의 특성 파악하기

1문단에서 ‘인간의 의식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서 상상은 ‘현실을 무화함으로써 새로운 비실제적 대상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의식의 활동’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1문단에서 인간은 ‘의식을 통해’ ‘현재의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1문단에서 의식은 ‘항상 어떤 가능성에 향해 나아가는 지향성을 지닌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에서 ‘의식이 어떤 대상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사물이나 상태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리를’ 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1문단에서 ㉠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본질이나 역할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의식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사르트르의 존재론적 관점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은 인간이 스스로를 구성해 가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5

문단에서 ‘예술가는 현실을 무화하고 상상을 통해 그것을 재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고, 감상자는 작품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그 의미를 구성하’고, ‘창작과 감상은 모두 인간 의식의 무화와 상상을 바탕으로 한 실존적 활동’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은 예술이 인간의 무화와 상상을 통해 세계를 구성해 가는 실존적 활동임을 강조하고 있다.

20.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4문단에서 ‘감상자는 예술 작품을 단순한 물질적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성을 초월한 대상을 상상하게 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관객 B가 작품 「시계」를 보고 ‘사라진 역사의 허망함’을 떠올린 것은 ‘상상’을 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인간은 이러한 무화를 통해 현실에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자신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현실에 ‘있지 않은 것’을 새롭게 지향할 대상으로 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보기>에서 현실에 ‘있는 것’은 ‘시각을 알려 주는 편의 장치’, 현실에 ‘있지 않은 것’은 ‘시간에 종속시키는 구속 장치’이다. 따라서 조각가 A가 ‘시각을 알려 주는 편의 장치’를 무화하고, ‘시간에 종속시키는 구속 장치’를 새롭게 지향할 대상으로 정립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감상자의 무화와 상상의 결과로 탄생하는 그 대상이 바로 미학적 대상이라고’ 하였다. <보기>에서 관객 C가 연상한 ‘시간의 유한성’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자신’은 미학적 대상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④ 5문단에서 ‘감상자는 작품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그 의미를 스스로 구성하며’, 4문단에서 감상자는 ‘능동적으로 ‘의미를 창조하는 자’라고 하였다. <보기>에서 작품 「시계」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관객 B는 ‘사라진 역사의 허망함’, 관객 C는 ‘시간의 유한성’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자신’이라는 의미를 능동적으로 창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예술가의 의식이 지향하는 대상은 구체적인 물질적 기반을 통해 비실재적인 대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물질적 기반’인 ‘아날로공’은 ‘상상한 결과를 지각 가능한 형태로 드러내는 유사 표상물’이라고 하였다. <보기>에서 작품 「시계」의 아날로공은 ‘부서진 시계’와 덧입힌 ‘청동’이므로 적절하다.

[과학]

[21 ~ 23] <출전> 정용택, 「적외선센서의 원리와 응용」

21.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3문단의 ‘반사체는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박막을 겹겹이 붙여 만든 것이다’에서 박막이 반사체를 구성하는 요소인 것은 찾을 수 있으나 박막의 소재는 빛 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1문단의 ‘약 0.7마이크로미터에서 1,000마이크로미터에 이르는 다양한 파장이 포함된다’에서 적외선에 포함되는 파장의 범위를 찾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1문단의 ‘이 기기는 광원 램프, 가스 셀, 광학 필터, 감지기로 구성되며’에서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의 구성 요소를 찾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1문단의 ‘마루의 높이와 파동의 에너지는 비례하며, 파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적외선 세기의 변화량은 비례한다’에서 파동의 마루와 적외선의 세기가 비례하는 관계임을 찾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의 ‘이 구조는 적외선이 박막과 박막의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되어 박막을 투과하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에서 광학 필터의 구조가 적외선의 반사되고 굴절되는 특성과 관계있음을 찾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2.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1문단의 ‘기체 분자가 적외선을 흡수하는 흡광 원리에 기반’한다는 것에서 적외선 분석기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고, 2문단의 ‘이때 가스 셀에 들어온 ~ 진동 에너지로 흡수된다.’에서 특정 파장의 적외선과 측정 대상인 기체 분자가 반응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문단의 ‘광학 필터를 이용하여 ~ 기체의 농도를 분석’한다는 것에서 기체 분자에 반응하는 특정 파장을 측정하는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가 특정 기체를 선택적으로 감지하는 데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이유는 기체 분자가 적외선의 다양한 파장 중 진동수가 동일한 파장만을 흡수하기 때문임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세부 내용 적용하기

4문단의 ‘그 결과, 파동 에너지가 ~ 도달하게 된다.’에서 ㉔에서 감지된 적외선은 ㉔에서 방출된 적외선 중 일부인 특정 파장의 적외선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문단의 ‘이때 가스 셀에 들어온 ~ 진동 에너지로 흡수된다.’에서 이 특정 파장의 적외선의 파동 에너지가 기체 분자의 진동 에너지에 흡수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㉔에서 기체 분자의 진동 에너지는 증가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의 ‘이로 인해 ~ 필터로 들어간다.’에서 가스 셀 내부의 기체 분자에 흡수되지 않은 파장의 적외선의 경우에는 ㉔에서 방출될 때와 ㉔로 들어갈 때의 파동 에너지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문단의 ‘반면, 특정 파장 외의 적외선은 ~ 필터를 통과하지 못한다.’에서 기체 분자에 흡수되지 않은 적외선은 필터를 통과하지 못해 ㉔에서 감지되지 않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의 ‘이때 가스 셀에 들어온 ~ 파동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것에서 ㉔ 내부의 기체 분자에 흡수된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파동 에너지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고, 4문단의 ‘공진층 내부로 들어온 ~ 파동 에너지가 강화’된다는 것에서 ㉔와 ㉔ 사이에서 특정 파장의 적외선의 파동 에너지가 증가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의 ‘이로 인해 ~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것에서 기체 분자의 양에 비례하여 기체 분자와 반응한 특정 파장의 적외선의 파동 에너지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고, 1문단의 ‘마루의 높이와 ~ 세기의 변화량은 비례한다’에서 파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적외선 세기의 변화량에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㉔에 들어 있는 기체 분자의 양이 많아질수록 특정 파장의 적외선의 파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㉔에서 감지되는 적외선의 세기는 작아질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의 ‘광학 필터로 들어온 다양한 ~ 감지기에 도달하게 된다’에서 기체 분자에 반응한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㉔에서 나와 공진층 내부를 왕복하며 파동 에너지가 강화되어 ㉔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독서 · 작문]

[24 ~ 27] <출전> (가) 이장규 외, 「공학기술과 사회」, (나) 임의영, 「공공성의 사상적 기초」

2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나)의 3문단과 4문단에서 참여적 거버넌스의 개념 및 의의 등은 설명하고 있으나 참여적 거버넌스의 현실적 한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1문단에서 ‘두 관점 모두 기술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

하다. ② (가)의 4문단에서 ‘사회적 구성론은 사회 집단 간의 해석과 협상을 통해 기술에 의미가 부여되고 기술의 발전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였고, 그 예로 자전거의 발전 과정을 들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3문단에서 ‘공정한 기준을 정책 결정에 ~ 참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하였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장한 개념이 참여적 거버넌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4문단에서 ‘참여적 거버넌스는 ~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읽기 방법 파악하기

(가)의 3문단에서 ‘기술 결정론은 사회적 맥락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고 한 부분과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사회적 구성론이다.’라고 한 부분을 통해 사회적 구성론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확인할 수 있고, 4문단에서 ‘기술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고 조정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의 4문단에서 ‘돌봄 로봇은 ~ 발전해 온 결과이다.’라고 한 것을 통해 (다)가 (가)의 사회적 구성론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확인하기

(다)의 2문단에서 ‘돌봄 로봇’의 ‘편의성’을 근거로 들면서 ‘사용자 인식 기능, 자동 동선 탐지 기능 등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만 언급할 뿐, 기능을 조작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다)의 1문단에서 ‘나는 돌봄 로봇을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다)의 1문단에서 ‘누구나 돌봄이 ~ 공정한 기준에 따른 선택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다)의 3문단에서 ‘돌봄 로봇은 사람의 정서적 돌봄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반대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다)의 3문단에서 예상 반론에 대해 ‘현재 돌봄 기능은 우울 수치를 약 30% 이상 낮춘 것은 물론, 정서적 안정감을 높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7.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파악하기

(나)의 3문단에서 ‘공정한 기준을 정책 결정에 ~ 참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을 통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는 주체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고, <보기>에서 ‘시민 인터뷰나 ~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통해 정책을 결정할 때, 양적 평가와 더불어 현장 관찰과 같은 질적 평가를 활용해야 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작문]

28.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4문단의 ‘그렇게 캄캄했던 밤하늘은 어느새 새벽이 되면서 오묘한 빛깔이 감돌기 시작했고 점점 별빛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밤하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확인하기

2문단의 ‘별의 밝기에도 등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심란해졌다’에서 별의 밝기 등급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느꼈던 자신의 감정을 언급하고 있지만, 별의 밝기 등급을 나누는 기준을 추가로 제시한 내용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의 ‘선생님께서 이 지역이 ~ 있다고 하셨다.’에서 육안으로 별을 볼 수 있는 이유를 밤하늘 보호 구역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밝혔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의 ‘이내 마음이 ~ 내음이 느껴졌다.’에서 어둠 속 산책로 체험에서 느꼈던 시각, 촉각, 청각, 후

각의 다양한 감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제시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의 ‘희미하게나마 자기 ~ 생각이 들었다’에서 별빛을 보면서 떠올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의 ‘한결 홀가분해진 ~ 얼굴이 떠올랐다.’에서 ‘나’가 전망대에 올라 별을 볼 때 윤동주의 시의 화자와 연결 지어 가족들의 생각을 떠올렸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제목 작성하기

‘별처럼 빛나는 나를 찾는, 밤하늘 사색 체험’에서는 별빛을 마주하며 자신의 존재를 찾는 경험의 의미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드러내고 있고, ‘별처럼’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소설]

[31 ~ 33] <출전> 작자 미상, 「하진양문록」

31.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옥윤이 모친이 준 ‘환약울’ 먹고 ‘한순간 꿈’에서 놀라 깨어 ‘약을 먹여 허가 나온 것을 보건대 가히 거짓으로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대화 내용 이해하기

[A]의 ‘네 죽어 어찌 부모와 조상을 저버리고자 하나뇨?’와 ‘너를 구한즉 가히 온 집안을 구하여 회복할지라’에서 옥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모친이 만류하는 이유를, [B]의 ‘백화를 보호하지 못하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니’에서 옥윤은 모친이 자신을 도와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옥윤이 도사에게 ‘형제끼리 서로 해치는 변고’ 때문에 ‘깨끗이 귀신이 되고자 하였’다는 것은 옥윤이 가문의 문제로 인해 목숨을 부지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선계의 조력자인 도사에 의해 옥윤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천궁에 계시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옥윤의 ‘꿈속’에서 위기에 처한 옥윤에게 진원자가 본래 스승이니 ‘쫓아감이 훌륭한 대궐’이라고 알려 준 것을 통해 선계의 조력자가 인물에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옥윤을 구해준 도사가 옥윤에게 ‘이번 세상에 여자이나 전생의 몸이 남자’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선계의 조력자가 인물에게 제공한 전생의 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옥윤이 수중에 몸을 던졌다가 황룡을 타고 올라온 후 곤륜산에서 만난 도사에게 ‘큰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구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선계의 조력자에 의해 위기의 순간에서 구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하원수가 호룡에 맞서 ‘무기를 부딪치고 몇 번 지나지 않아’서 ‘호룡의 머리’를 베고 남은 무리와 백성을 위로하는 것을 통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시가·고전수필]

[34 ~ 38] <출전> 김기홍, 「농부사」
유희, 「관가점우사상기」

34.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는 ‘천민이 되어 나서 본업을 아니하랴’, ‘세상의 중한 일이 이 밖에 또 있을까’ 등에서, (나)는 ‘문학을 비루한 일이라 무시해서야 되겠는가?’ 등에서 각

각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5.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C]는 ‘대순’, ‘후직’, ‘이운’, ‘제갈량’ 등 농사에 종사한 성현들의 사례를 열거하고 있지만, 농업 기술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는 ‘쟁기’, ‘호미’와 같은 농사일과 관련된 기구를 활용하여, ‘봄이 들고’, ‘비이슬에 자’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농사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B]는 ‘남의 밥을 아니 빌면’이라는 자립적인 삶을 실현한 상황을 가정하여, ‘천지간’에 ‘한’이 없을 것이라며 농사짓는 삶의 만족감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D]는 ‘금은’, ‘옥백’과 같은 부귀와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이들이 ‘기갈’, ‘흉년’에는 쓰임이 없으며 농사가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임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E]는 ‘성인’과 ‘우부’를 대비하여, 농사가 처지의 구분 없이 하는 일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작품 감상 비평하기

‘그대 또한 글을 지을 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일세’와 ‘글을 지을 줄 몰랐다면 이런 깨달음도 없었을 것이요’에서 글쓰이는 체 장수가 글을 지을 줄 알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글쓰이는 체 장수가 그러한 사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글을 지을 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 비루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응수하지 않았으므로 ㉔는 적절하지 않다.

① ‘어조가 격렬하고 오열하여 거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에서 책을 걱정적으로 낭독하는 목소리를 들었음을 알 수 있고, ‘놀라고 의아하여 급히 일어나 쫓아가’에서 그 인물을 찾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㉔는 적절하다. ② ‘어찌 젊어서 먹고살 방도를 체를 만들어 파는 데서 찾는단 말이오’에서 글쓰이가 체 장수에게 생계를 위해 체를 만들어 파는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질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⑥는 적절하다. ④ ‘나는 그 사람을 기이하게 여기고’에서 글쓰이가 체 장수를 기이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의 논의를 슬프게 여겨’에서 글쓰이가 체 장수의 말에서 슬픔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④는 적절하다. ⑤ ‘전하지 말라는 경계’에서 체 장수가 글쓰이에게 기록을 삼가달라고 했음을 알 수 있고, ‘따르지 않고 이 기를 쓴다’에서 글쓰이가 체 장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만남과 대화를 글로 남겼음을 알 수 있으므로 ㉔는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가)의 ‘옴으며 노래 불러 뉘 아니 감동하리’에서 화자가 ㉑에 누구든 공감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나)의 ‘놀라고 의아하여 급히 일어나 쫓아가 보니’에서 글쓰이가 ㉑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호기심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가)의 사대부가 ‘항산’이 없으면 ‘선심’이 나올 수 없다는 것에서, 생업을 도덕적 삶의 실천을 위한 전제로 보는 사대부의 현실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사대부는 ‘체를 만드는 것과 글을 짓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고 ‘재료’와 ‘소득’의 ‘차이만 있’다고 하고 있을 뿐, 문학을 생업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사대부의 현실 인식은 엿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사대부가 ‘인명이 지중하고 하늘이 만들었’기 때문에 ‘천민’은 ‘본업’을 해야 한다는 것에서,

운명론적 관점으로 생업을 바라보는 사대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의 사대부가 ‘벼슬한 자들’이 ‘스스로’를 ‘바르다고’하며 ‘남’은 ‘잡스럽다고’ 한다는 것에서, 당대의 현실을 부조리한 사회로 바라보는 사대부의 관점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사대부는 ‘농사’를 통해 ‘처자식’을 ‘거느리고’ ‘배불리 먹’겠다고 하고 있으며, (나)의 사대부는 ‘아버이는 늙어가고 아이는 또 성장하’여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하여 ‘체를 만들어 파는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대부가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 노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사대부가 ‘글을 읽’는 것을 통해 ‘충효를 본을 삼’는다는 것에서 유교적 덕목을 중시하는 삶에 대한 사대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사대부가 ‘많이 알면서 글을 잘 짓는 자’에게 ‘내려지’는 ‘무형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구애되는 바가 없’어졌다는 것에서 유교적 명분에 얽매이지 않는 삶에 대한 사대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적절하다.

[현대소설]

[39 ~ 42] <출전> 황순원, 「신들의 주사위」

39.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A]의 ‘내가 맡는 편이 ~ 누가 뒤팔라고?’, ‘그럴 바에야 내가 ~ 도리고 말고.’에서 두식 영감의 시선으로 춘길이의 집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두식 영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작품 속 대화의 맥락 이해하기

㉔은 춘길이가 ‘돈 한 푼 없이 당장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한영의 의문이 드러난 말이며, ㉕은 ‘집 넘어가는 거야 그냥 내버려둬’도 ‘넘어가는’ 상황에 처한 춘길이가 두식 영감을 찾아온 것은 ‘얼마만큼 돈을 바래서’이지 않겠냐는 한영의 추측이 드러난 말이다. 따라서 ㉕은 ㉔에 나타난 의문이 해결될 수 있음을 통해 두식 영감을 안심시키는 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㉕은 ‘옴막이라두 우리구 ~ 밀천이 있어야겠다’는 춘길이의 바람이 드러난 말이며, ㉑은 춘길이에게 ‘얼마’ 정도의 돈을 쥐야 하지 않겠냐는 한영의 의견이 드러난 말이다. 따라서 ㉑은 ㉔에 드러난 춘길이의 바람이 두식 영감에게 수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㉑은 춘길이에게 ‘얼마’ 정도의 돈을 쥐야 하지 않겠냐는 한영의 의견이 드러난 말이며, ㉕은 ‘채물은 영물’이므로 ‘사람을 보구 ~ 달아나 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춘길이에게 ‘돈 한 푼’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두식 영감의 생각이 담겨 있는 말이다. 따라서 ㉕은 ㉑에 담긴 한영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한 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㉔은 ‘돈 한 푼 없이 당장’ 살아가야 할 춘길이의 문제 상황을 알려 주는 말이며, ㉕은 ‘채물은 영물’이므로 ‘사람을 보구 ~ 달아나 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춘길이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두식 영감의 생각이 담겨 있는 말이다. 따라서 ㉕은 ㉔에 담긴 춘길이의 문제 상황에 두식 영감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㉔은 ‘옴막이라두 우리구 ~ 밀천이 있어야겠다’는 춘길이의 바람이 반영된 한영의 입장이 드러난 말이며, ㉕은 ‘집 넘어가는 거야 ~ 넘어가는’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바라며 두식 영감을 찾아온 춘길이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한영의 바람이 드러나 있는 말이다. 따라서 ㉕은 ㉔에 드러난 한영의 입장에 덧붙여 두식 영감을 설득하기 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관용적 표현의 맥락상 의미 이해하기

강 사장은 봉룡의 얘기를 들으며 두식 영감네의 사정이 ‘이만저만 다급한 게 아닌 것’을 안 후 ‘조금만 더 버티면 아주 싼값으로도’ 땅을 ‘후려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후 ‘그러다가 깨끗하는 날’에 자신만 ‘또 애먹게’ 될 수 있으니 ‘이 이상 속을 태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땅을 ‘논보다 천 원 아랫값’으로 떼어내 보라고 봉룡에게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강 사장이 자신에게 돌아올 손익을 따져 보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얼마만큼 돈을 바래서’ 춘길이가 두식 영감을 ‘찾아 뵈 게 아니겠’냐고 한영이 말한 것에서, ‘돈 한 푼 없이 당장’ 살아가야 할 농민에게 유대감을 드러낸 공동체 구성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신뢰 관계가 무너진 농촌 구성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두식 영감이 ‘5부 5리’의 ‘장릿변 찜 쪼 먹게 비’싼 ‘변리’를 물지 못한 춘길이를 언급한 것에서,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민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두식 영감이 ‘변리가 얼마나 나가는지’만 관심을 보이며 춘길이가 ‘돈 한 푼’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 것에서, 농촌 구성원에 대한 유대감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농촌 소자본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강 사장이 두식 영감네의 사정을 듣고 땅을 ‘아주 싼값으로도 후려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에서, 농촌 구성원의 사정은 고려되지 않고 농촌의 토지가 자본의 논리에서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강 사장에게 ‘약점을 잡’혀 ‘별수 없’이 한영 아버지가 전보다 낮은 값으로 땅을 팔기 위해 두식 영감의 ‘토지 문서와 인장’을 내놓는 것에서, 도시 자본의 거래 조건에 매인 농촌 소자본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시]

[43 ~ 45] <출전> 박성룡, 「처서기」
고재중, 「성숙」

43.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나)의 2연에서 ‘가을이 이 땅을 찾아오는 별레 설레이는 소리’가 ‘재깍재깍 녹슨 가윗소리’로 ‘들리게 마련’이라고 하며 ‘재깍재깍’처럼 소리나 모양을 흉내낸 음성상징어를 활용해 계절의 변화가 유발하는 시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또한 (다)의 1연에서 ‘짜갈 짜갈 소리날 듯’, 2연에서 ‘썩 썩잉, 싸대기를 후리자’, ‘후둑후둑둑 굵은 눈물방울로’라고 하며 ‘짜갈짜갈’, ‘썩 썩잉’, ‘후둑후둑둑’처럼 음성상징어를 활용해 바람과 미루나무의 모습이 유발하는 시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㉔는 ‘천지를 울리던 우레소리들도 이젠’ ‘먼 산맥의 등성이를 넘어가나보다’고 하며 ‘우레소리’의 변화를 지각하고 있는 시간이고, ㉕는 ‘미루나무’가 ‘애증의 이파리 모두 떨구고’ ‘이제는 제 고독의 자리에 서서’ ‘고개 들 줄도 알거니’라며 ‘미루나무’라는 대상에 ‘성숙’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시간이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나)는 처서 무렵의 서늘하고 맑은 가을의 이미지들을 중심으로 심리적 안식을 바라는 화자의 내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다)는 기쁨과 고통을 모두 겪은 후 성숙해지는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미루나무의 성장 과정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나)의 4연에서 ‘처서 가까운 이 깊은 밤’에 깨어 있다 ‘별레소리’를 듣던 ‘나’는 그 소리가 ‘다 흐르고 말’아 고요해진 상태가 되면 ‘비로소 잠이 들겠다’고 하며 동적 이미지에서 정적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고, (다)의 1연에서 ‘바람’에 닿은 ‘미루나무’의 ‘이파리들’이 ‘소리날 듯’ ‘보석조각으로 반짝이’고, 2연에서 ‘바람’에 ‘미루나무’의 ‘이파리들’이 ‘온통 강물에 쏟아’진다고 하고 있어 동적 이미지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2연에서 ‘나’가 ‘꿈길을 참고 건’디고 난 후 ‘들게 되’는 것이 ‘가을이 이 땅을 찾아오는’ ‘별레 설레이는 소리’이다. 가을이 오는 것에 대한 화자의 기대를 ‘별레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다)의 3연에서 ‘미루나무’가 바람의 변화에 따라 ‘황홀’과 ‘매정함 사이’에서 ‘키한두 자썩’ ‘더 키우고’ ‘몸피’를 ‘더 불’려 성장하는 모습에 기쁨과 고통을 모두 겪은 후 삶이 성숙해진다는 화자의 인식이 투영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다)의 4연에서 미루나무가 ‘애증의 이파리 모두 떨구’는 모습에서 하강 이미지가, ‘남빛 하늘로 고개’를 든다고 한 모습에서 상승 이미지가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애증의 감정이 사라진 후에 성숙해지는 삶에 대한 화자의 내적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화자는 2연에서 ‘별레 설레이는 소리’가 3연에서는 ‘손이 시릴 만큼 차가운 개울물 소리’를 이룬다고 하였고, ‘손이 시릴 만큼 차가운’은 촉각으로, ‘소리’는 청각으로 이미지화한 별레 소리가 들리는 자연 현상을 통해 화자가 여름에서 가을로 변화하는 계절의 흐름을 인식한 바를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다)의 2연에서 ‘바람의 싸늘한 손’이 ‘미루나무’의 ‘이파리들’의 ‘싸대기를 후’린다고 하여 시각과 촉각으로 이미지화한 바람이 미루나무의 이파리들을 떨어뜨리는 자연 현상을 통해 바람이 미루나무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적절하다.